

# 尹 “한미일 협력 새 시대…국민 위험 줄고 기회는 커져”

을지 국무회의의 주제…“3국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체로 진화”  
“북한 목적 달성 위해 핵사용 불사…국민 공습 대응역량 향상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캡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의 모두발언에 “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캡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대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 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의 해양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지원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협은 확실하게 줄어주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공급망 연대’를 가장 먼저 꼽으며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안보 협력을 두고서는 “우리 기업들은 개입체 인자가 될 핵심 신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발금융기관 간 이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두루 언급하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야권 등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 국익만 증대되고 우리 국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점 등을 예들려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국무위원들에게는 한미일 정부차원간 소통·협력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는 3국 협력 강화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을지연습과 관련해 “오늘날의 전쟁은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 관, 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정부차원에서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올해는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축소됐던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했고, 올해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북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천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을지연습 주안점을 3가지로 나뉘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 자유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반국가 세력’에 대한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 국가중요시설 방호 대책의 획기적 개선, 일반 국민의 공습 대응역량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러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국힘 “적격” vs 민주 “수사대상”

윤 대통령 임명 강행할 듯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시한 내 채택되지 못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이날 오전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며, 청문 보고서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고, 논의 끝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적격 의견을 배제한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일단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채택하고, 안 되는 사유는 조건을 달아서 하자고 해도 (민주당이) 말을 듣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승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후보자는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것조차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의 부적격 인사라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채택한다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과방위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는 이후에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만큼 이날 회의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청문보고서 역시 시한 내 채택이 어려울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이날이 보고서 채택 시한이다.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일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23일)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尹 지지율 35.6%…전주보다 2.7%p 하락

리얼미터 조사…부정평가 61.2%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30% 중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러블 의뢰로 지난 14일, 16-18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7%포인트(p)

떨어진 35.6%로 집계됐다.

조사 기간상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리얼미터 측은 전했다. 3국 정상회의는 한국 시간으로는 19일 새벽에 진행됐다.

긍정 평가는 6월 다섯째주 조사서 42.0%를 기록한 후 하락을 거듭하다 7월 넷째주에 반등,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번 조사서 4주 만에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2%p 오른 61.2%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가 60%대를 기록한 것은 60.8%였던 5월 둘째주 조사 이후 14주 만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3.7%p ↑)을 제외하고 광주·전라(4.4%p ↓), 서울(3.7%p ↓), 대구·경북(3.4%p ↓), 인천·경기(3.2%p ↓)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다.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여야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

여야는 21일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정치), 6일(외교·통일·안보), 7일(경제), 8일(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같은 달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각각 한다.

정기국회 기간 안전컨설팅을 위한 본회의는 21일

과 25일로 각각 잡혔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 31일로 예정됐다.

여야는 그러나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말까지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월말에 비하기 기간을 남겨 놓자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